[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⑤ 군승 파송 제도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군승 파송 자원 수급 문제는 출가자 감소라는 불교계의 현실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출가자 확보에 대한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단기적으로 파송 자원 수급방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군포교 현장과 종단 안팎의 제언을 싣고자 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사관학교 등 건립 추진 필요

조계종 종회의원 정범 스님
〈군승 2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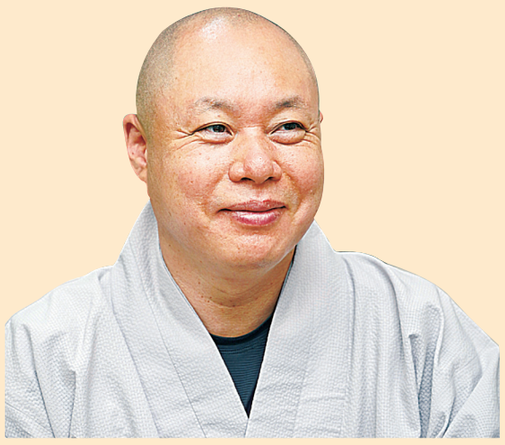
군승은 그동안 독신비구로 정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1969년 저보다 먼저 군법사가 된 1기부터 25기(1995년)까지 종단은 237명을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종단으로 복귀한 군승은 38명뿐입니다. 제 뒤로 군승 26기부터 53기(2021년)까지 239명이 역시 파송됐습니다. 이 중 134명이 스님으로 종단에 복귀하였습니다. 요즘은 파송 스님 중 90% 이상이 현역으로 있거나 종단으로 복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히 종단 안팎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비역 군승 출신 종회의원을 보면 수십 년간 한두 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10여 명에 달합니다. 교구본사에서는 7직 중 2~3명이 군승 출신입니다. 군승 정체성 강화로 군포교를 경험한 이들이 점점 늘기에 자연스럽게 군포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승 수급의 핵심인 출가자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승 파송 요구인원 중 7명밖에 파송 못한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종단은 그동안 최대 숙원이었던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 이후 논산 육군훈련소 불사 등 원력과 신심을 바탕으로 불사를 이어왔습니다.

군승 수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청년 스님들이나 스님이 되려는 이들이 군종장교, 즉 군승으로 병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단이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등 수급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역자 관리부터 진급 등 보다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교인 감소는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기에 함께 정부와 협의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단이 보유한 신촌 봉원사에 군승사관학교를 건립해 수도권 군승 지원자 스님들 학사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종단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운영령 등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군불교 핵심인 군승에 대한 종단 안팎의 인식을 높이고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마련에 나섰으면 합니다.



군승 의무복무 제도화 단기적 해법될 것

조계종 종회의원 법원 스님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군불교를 논할 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포교의 황금어장' '한국불교의 미래' 입니다. 이는 불교발전과 더 나아가 불교 존립에 있어 군불교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 있는 군승들은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소중한 이들입니다.

군승 파송의 미달사태는 출가자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겠지만 종단의 군승제도와 자원관리 소홀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적은 출가자에도 군미필자들은 군승으로 복무케 하고, 군필자 중 자격이 되는 이를 임관토록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년, 청년출가제도를 보완하면 군승 수급 확대를 위한 '군승연계출가' 가 가능합니다. 미필자 스님들의 군승 의무복무는 제도화 되어야 하고, 이것이 군불교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복무중인 군승 자원을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관리, 장기복무를 원하는 이들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군승 파송의 역할만 하고, 파송된 군승의 인사관리는 군이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위관장교들의 진급, 연장, 장기복무 등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새고 있으면 물을 아무리 길어다 넣어도 채워 넣을 수 없는 이치죠.

군승 파송 인원은 전역 인원에 비례하기에 결국 전역과 파송 관리를 복합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종단과 군종특별교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군승' 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불자들 중에도 출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출가제도 등 종단 출가제도의 폭을 넓히고, 군승사관학교 설립, 장기복무 우선선발 등 요원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종립대학 학생들에게 '군승' 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승·군법사 분리 이원화 제도 모색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군포교는 군장병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기를 연계시키는 핵심 포교활동 영역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20대 초반의 남자, 그리고 하사관과 장교들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승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최근 벌어진 군승 파송 미달은 출가자 감소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과 같이 의무할당, 의무복무하게 하는 방법은 출가자 급감 속에서 결국 대안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반학생들이 군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군승 자격으로 제정된 독신을 폐지하고, 대신 군승과 군법사, 즉 군종장교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학생의 경우 군종사관후보생이 되면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이수케 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리 운영시 중요한 점은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장기 복무 및 승진 등에서 이점이 있도록 힘써야 하며, 군포교 전력이 일정기간을 두고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군승 전역자와 입대자 비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규모화된 인력 배치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승 파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군포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포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 것입니다. 스님들의 병역 이수를 군승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자질과 역량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군포교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승에 대한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고, 제도의 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종사관후보생제 되살려 최대 활용을

이정우 前 군승법사
〈제38대 군종병과장〉

인구절벽으로 출가자 감소가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군승파송 미달사태는 명약관화하였습니다.

현역 군승들은 군정책에 따라 십 수 년 전부터 불교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묵과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승 수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출가자 중 군승수급 대상 연령그룹을 어떻게 보다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와 종단이 협의하여 장기복무 확대 등 전력보존을 위한 방안도 있지만 군은 다양한 병과와 인원으로 조직되고,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인력조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불교만을 위한 특별한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각 연차별로 인력수급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매년마다 임기응변식 요원확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상황입니다. 제3기 군종교구장 시기 일방적으로 시행한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무력화와 전원 군종요원 선발 방안은 결국 큰 패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금 후보생에 관심 있는 대상들에게 군포교의 절박성을 적극 홍보하여 젊은 불자들이 사명감과 순교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들게 해야 합니다.

군종병 출신자들이 군법사로 재입대하거나 요원 선발시 특별 우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가 전문하사를 지원하거나 부사관 혹은 장교 지원시 일시불 생활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듯 군법사 복지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불하여 생활지원이나 차량, 포교 자재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는 듣지 않는 일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다양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종단, 군종교구에 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를 것이고 다양할 것이라 봅니다. 그들을 미래불교의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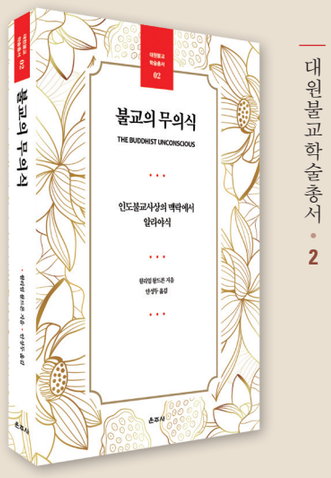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1

한국불교통사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서를 지향하면서도 철저히 정사(正史)에 의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불교사 입문서이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92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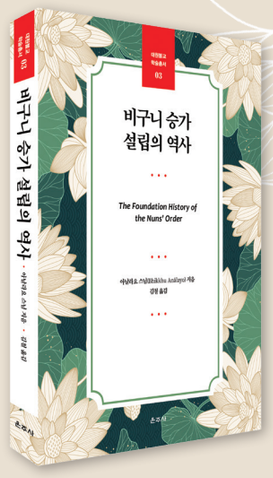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2

불교의 무의식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두 주제에 대해 유식학파의 알라야식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마음이론에 대한 정치한 체계를 만날 수 있다.

윌리엄 왈드론 지음/안성두 옮김/신국판/456쪽/값 23,000원





대원불교학술총서 • 3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차별적 관습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초기 경전의 비교를 통해 밝혀낸다.

아날라요 스님 지음/김철 옮김/신국판/360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